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경복궁 나들이

불교여성개발원, 100여 다문화인과 문화체험행사



다문화가족들은 조계사를 방문, 불상참배와 점심공양 후, 서울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경복궁 수문장교대식을 관람했다. 또 궁정전, 사정전, 경회루, 향원정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궁 방문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다문화가족이 조계사와 경복궁을 나들이하는 행사가 열렸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6월 30일 다문화가족 100여 명과 함께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조계사·경복궁 나들이'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들은 조계사를 방문, 불상 참배와 점심 공양 후, 서울문화관광해설사들과 함께 경복궁 수문장교대식을 관람했다. 또 궁정전, 사정전, 경회루, 향원정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는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이 자원봉사를 비롯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영주, 매일유업(명예회장 김인순)이 음료 350개를, 아동복캠프(대표 유형숙)이 모자 100개를, 청운아이에스(대표 이대훈)이 피자 와 아이스크림, 전국보습학원연합회(회장 조문호)가 차량제공을 하는 등 많은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졌다.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구원자 단장은 개회사에서 "다문화 가족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적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자존감을 높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부 조운선 장관이 서면을 통해 축사를, 정세균 국회의원이 동영상으로 격려사를 보내왔다.

조운선 장관은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화합의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 사상, 원효 대사의 '다름이' 조화롭게 공존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일용회용'은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서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다문화국가로서의 과도기 증상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일민족이라는 배타성의 벽을 깨고 다른 인종·문화·가치를 보듬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2009년에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을 설립해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해왔다. (02)722-2101

이어나 기자

한마음과학원, 교사 인성교육 직무연수

8월 5~9일 창원 도계초에서

한마음과학원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직무연수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 리더십 과정'을 8월 5-9일 경남 창원 도계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번 과정은 교과 및 학생지도, 학급운영을 포함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문제 상황과 갈등의 해결은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마음과학원은 "교사 자신에 대한 성찰을 곧 자신의 삶에 활용해 체현해보게 하는 활동을 통해 이론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토론, 실천에 대한 피드백, 상담실습 등 다양한 그룹 활동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을 배우고 다른 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7월 22일 까지 신청서를 받아(http://blog.hansui.org/) 이메일(kmsjin0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어나 기자

나란다 축제, 사관생도·외국인에 확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요강 발표...31일까지 참가 접수

한국불교 최대 불교 교리 경시대회인 '나란다 축제'가 올해는 사관생도와 외국인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진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사관생도와 외국인 부문 전형까지 확대된 '제5회 나란다축제' 모집 요강을 7월 4일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 등 3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9월 7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리며 기존 초등부와 일반부에 '외국인 부문'이 추가로 개설됐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되는 외국인 부문은 외국 국적 소유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제 등 전 과정이 영어로 이뤄진다.

일반부의 경우 팀별 퀴즈대회를 진행되며, 사찰과 가족, 개인 등 3인 1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초등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역 예선을 거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중·고등부와 군장병과 더불어 사관생도까지 부문이 확대됐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가 참여하는 생도부부는 9월 11일 오후 해당 학교 법당에서 진행된다. 참고교재는 조계종출판사의 <불교입문>이다.

기존의 중·고등부와 군장병 부문은 9월 7일과 8일 각각 전국 개설된 시험장에서 열린 예정이다. 시험문항은 중등부 40문항, 고등부·군장병·사관생도 45문항이며, 객관식과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뉘어 출제된다.

지난해부터 개설된 '전통불교문화 체험마당'은 동국대 만해광장에 열리며, 불교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초·중·고등부 대상에게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불교문화 체험 등 3개 마당으로 꾸며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장학금이 각각 지급되며, 군장병과 사관생도 대상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부상으로 포상휴가증이 수여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에

포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참가접수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eunjung.or.kr)에서 하면 된다. (02)515-9351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반야용선에 '영가천도' 서원 담아 백중입재

조계사에 반야용선 목건련호가 진수됐다. 조계사는 불기2557(2013)년 7월 3일 오전 9시 30분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반야용선 점안식 및 백중 입재'를 봉행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점안식과 팔과 청수를 뿌리는 정화의를 봉행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범문을 통해 "반야용선 목건련호"는 소달구지에 곡식·금강경·업경대(살아생전 닭은 업)·초를 싣고 극락으로 영가님들을 실어 나르는 형상으로 제작됐다"며 "부모은중경에서 변상경도(경전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를 1제부터 7제까지 공양하면 영가님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면하고 천상으로 인도된다"고 의미를 전했다.

글=신종일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화천군,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

7월 13일 평화의 댐 일원서

한국전쟁 정전 60년을 맞아 불교계와 강원도 화천군이 대규모 추모 행사를 연다.

조계종과 화천군은 7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전쟁 당시 화천 전투에서 산화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세계평화합동위령제'를 화천군 평화의 댐 일원에서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령제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화천 백암산·파로호 전투에서 숨진 28개국 10만여명의 희생자를 피아 구분 없이 추모하는 행사로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DMZ 추모 평화콘서트 △위령탑 건립 선포식 및 문화 등으로 꾸며진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광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28개국 수많은 젊은이들의 숭고한 넋이 파로호에 63년간 묵묵히 잠들어 있는데 이 애처로운 영혼들을 추모함으로써 이 땅

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감철 화천군수는 "위령제를 통해 한국전쟁 희생자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위령제가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및 신뢰형성을 기반으로 세계평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2013년 동산불교대학 4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8월 10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산반

| | | |
|-----|-----|--|
| 1년차 | 과목 |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대승불교, 불교사회복지론, 불교개혁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
| | 교수진 | 무진장대종사(본대학장), 정엄스님, 김형준교수, 종석스님, 주명철교수, 보각스님,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철수교수, 김호규교수, 활안스님 |
| 2년차 | 과목 | 근본불교, 유식사상, 반야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
| | 교수진 | 최봉수교수, 묘주스님, 김형준교수,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박종교수 |

* 불교관련학과 개강 [다도학과 9월3일, 불교미술학과 9월5일, 선·명상학과 9월5일]

* 불교대학원 개강 [9월2일, 9월3일, 9월5일]

* 불교의식교육원 개강 [한글의식반 9월7일, 범패의식반 9월4일]

■ 모집인원(불교학과) | 180명(토요일, 목요일, 통산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불교학과) | 2013년 7월 1일부터 ~

■ 문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교사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시 중구 수송동 16-20 동산불교대학
TEL 02)732-1206~9 FAX 02)732-1207 http://www.dongsanbud.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산생)

| | |
|-----------|---|
| 기본과정(3개월) | 사물(목탁, 요령, 대장,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
| 작법반(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7월 24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특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